

사회봉사단 뉴스레터



- 발행일: 2012년 11월 14일
- 발행처: 사회봉사단
- 발행인: 김상래 / 편집인: 김원곤

장기 기증에 관한 인식 전환 캠페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오아시스가 함께 행사 마련해



지난 11월 7일 10시부터 17시까지 솔로몬광장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하는 삼육대학교 생명 존중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 자원 봉사단(이하 오아시스) 회원들은 학생들이 장기기증에 대해 갖고 있었던 기존의 부정적인 선입견과 오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취지를 두었다.

“각막기증은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하다.”, “뇌사란 식물인간 상태를 말한다.”, “장기기증서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서약을 하면 반드시 장기기증을 해야 한다.” 라는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에 대한 OX 문제를 맞추는 행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행사장 한 켠에는 세계의 장기 기증 광고전도 열렸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두렵고 무섭게만 느껴지는 장기기증에 대해 자연스럽게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행사를 진행한 오아시스 신동민(사회복지 3, 오아시스 단장) 학생은 “장기기증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것이 부끄러웠고,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오아시스 회원인 김시진, 박지혜(화학과 1학년) 학생은 ‘save9’의 의미를 되짚으며,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최대 9명을 살릴 수 있다.”, “한명의 장기기증으로 9명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 캠페인을 통해 삼육인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었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정착되었기를 기대해본다.